

발행·편집인 김민수
(재)동승학술재단
韓國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50-13
☎ (02)910-4812



2012년 4월 30일 발행

제 16 호

인쇄 도서출판 두솔
☎ 313-3116

민족학술의 진흥 : 2012년도 학술지원

(財)東崇學術財團 2012년도 학술지원 공고

I. 2012년 제16회 동승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이는 우리 민족학술의 연구에 현저한 저술이 있거나, 우리 민족학술의 선양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함.

1. 시상 부문 : 국어학.
2. 시상 대상
 - 민족학술의 연구에 현저한 저술이 있는 분.
 - 민족학술의 선양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
3. 시상 인원 : 약간 명.
4. 시상 내용 : 상장 및 연구비(300만원 내외).
5. 추천 방법 : 추천자가 작성하여 인비로 제출함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자 : ① 관계 학술 단체장 또는 대학 총장이나 학장.
 - ② 본 재단이 의뢰한 사계의 학자.
 - ③ 본 재단 수상자 또는 재단 임원.
 - 제출서류 : ①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② 추천 저술 1부.
 - 접수마감 : 2012년 8월 31일.
 - 접수방법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6. 수상자 선정 : 본 재단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함.
7. 서식 배포 : 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sung.or.kr/>)
7. 서류 접수 : 韓國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50-13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
전화 (02) 910-4812
8. 시상일 : 2012년 11월 22일(목) 예정.

II. 2012년 제6회 동승학술총서 저술지원 신청요강

이는 우리 민족학술의 체계적 연구와 창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술의 원고를 선정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1. 지원 부문 : 국어학.
2. 지원 대상
 - 2012년도 : 국어 발화론, 국어 교육, 전산국어학.

- 2013년도 : 국어 형태론, 한국어 교육, 국어사전학.
 - 2014년도 : 국어 통사론, 국어 정책론, 기타.
 - 2015년도 : 국어 음운론, 국어 의미론, 국어 문자론.
 - 2016년도 : 국어 어휘론, 국어사, 국어 계통론.
 - 2017년도 : 국어 문장론, 국어학사, 국어 방언론.
3. 지원 인원 : 1명.
 4. 지원 내용 : 연구비(1,000만원).
 5. 지원 조건
 - 신청 시에 초고가 완성된 것이어야 함.
 - 신청한 초고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연구비는 최종 원고 제출 시에 전액 지급함.
 - 선정된 원고는 『동승학술총서』로 발행함.
 6. 신청 방법 :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함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
 - ② 원고(출력본) 1부.
 - 접수 마감 : 2012년 8월 31일.
 - 접수 방법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7. 대상자 선정 : 본 재단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8. 서식 배포 : 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sung.or.kr/>)
 7. 서류 접수 : 韓國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50-13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
전화 (02) 910-4812
 9. 시상일 : 2012년 11월 22일(목) 예정.

III. 2012년 제13회 동승학술논문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이는 학술 연구의 질적 향상과 우리 민족학술의 전진적 발전, 나아가 뛰어난 신진 학자의 배성을 위하여 특출한 학위 논문을 정선하여 칭양함을 목적으로 함.

1. 시상 부문 : 국어학 / 마취학.
2. 시상 대상 : 특출한 학위 논문 혹은 획기적인 일반 논문.
3. 시상 인원 : 각 부문 약간 명.
4. 시상 내용 : 상장 및 연구비(300만원 내외).
5. 추천 방법 : 추천자가 작성하여 인비로 제출함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자 : ① 관계 학술 단체장 또는 대학원장.
② 본 재단이 의뢰한 사계의 학자.
③ 해당 논문 지도 교수 또는 심사 위원.
- 제출서류 : ① 추천서(소정양식) 1부.
② 추천 논문(7년 이내) 1부.
- 접수마감 : 2012년 8월 31일.
- 접수방법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6. 수상자 선정 : 본 재단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함.
- 7. 서식 배포 : 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sung.or.kr/>)
- 7. 서류 접수 : 韓國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50-13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
전화 (02) 910-4812
- 8. 시상일 : 2012년 11월 22일(목) 예정.

IV. 2012년 제3회 동승연구지원금 신청 요강

이는 학문후속세대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 지원 부문 : 국어학.
- 2. 지원 대상 : 국내의 대학원의 박사과정 및 박사과정 수료생
- 3. 지원 인원 : 약간 명.

- 4. 지원 내용 : 연구비(200만원 내외).
- 5. 지원 조건 :
 - 창의적인 연구 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함.
 -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연구비는 선정 시에 전액 지급함.
 - 선정된 연구계획은 논문으로 완성하여 학술지에 게재함.
- 6. 신청 방법 :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함(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1부.
② 연구계획서(출력본) 1부.
 - 접수마감 : 2012년 8월 31일.
 - 접수방법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7. 대상자 선정 : 본 재단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8. 서식 배포 : 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sung.or.kr/>)
- 7. 서류 접수 : 韓國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50-13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
전화 (02) 910-4812
- 9. 시상일 : 2012년 11월 22일(목) 예정.

동승(東崇)학술재단 설립취지서

우리 민족은 험난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도 독자적인 단일민족으로 발전하며 오늘에 이르렀고, 장차 21세기에는 지구촌에서 신시대 인류평화와 복리에 공헌하는 통일국가의 문화민족으로 생성할 것을 갈망한다. 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족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학술의 심오한 발전을 이룩해야 하며, 민족학술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추진에 거족적 참여와 운동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축적해 가야 한다. 이러한 오늘 의 전망 속에서 개인의 역량이라도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결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본 발기인 대표는 교육과 학문의 생애에서 근면으로 축적한 재산을 사치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굳이 재단을 세워 기여하려는 것은 조그만 충정에 불과하다. 그런데, 장차 재단 운영의 실패와 성장이 가장 중요시되는 이유는 물론

한번 설립된 재단이 죽지 않고 영원히 활동한다는 것을 실증함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의 시범적 발전이 향후 우리 민족학술의 진흥을 위한 재단의 설립을 끊임없이 촉출케 하는 요인을 조성하는 결과가 되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차 촉출할 일련의 재단이 공조체계를 갖추고 연합한다면 우리의 소원도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발기인 일동은 발기인 대표와 뜻을 같이하여 본 재단 설립에 동참하고자 한다.

1995년 12월 1일

발기인 대표 김민수

발기인 정준섭, 이원직, 최호철

안계상, 이승구, 이광정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 정관 (1996. 1. 10. 허가)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 민족학술의 연구를 장려·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50번지의 13호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비 지원
2. 학술기관 및 단체지원
3. 현저한 공로자에 대한 학술상 시상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5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 원 진 (2012년도 1월 10일 등기)

- 이 사 장 : 김 민 수(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상임이사 : 이 원 직(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 이 사 : 최 호 철(고려대학교 교수)
- 이 사 : 최 경 봉(원광대학교 교수)
- 이 사 : 박 건 식(문화방송 프로듀서)
- 감 사 : 유 병 현(고려대학교 교수)
- 감 사 : 한 경 택((주)넥슨 재무이사, 회계사)

(財) 東崇學術財團 2011년도 학술지원

I. 동승학술상 시상

수상자 : 劉銀鐘 1942年生, 중국 浙江越秀외국어대학 중신 영예교수. 주요공적: 우리말의 學術的發展과 國際的 普及. 추천: 중국 연변대 총장 김병민



劉銀鐘

상 장 : 第11-50號 위의 사람은 우리말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선양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수상자 : 洪思滿 1944年生,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요공적: 국어의 특수조사 연구. 추천: 경북대학교 인문대학장 백두현



洪思滿

상 장 : 第11-51號 위의 사람은 오랫동안 우리말 研究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어의 특수조사 연구에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수상자 : 熊谷明泰(구마타니 아키야스) 1948年生, 일본 관서대학(關西大學) 교수. 주요공적: 우리말의 學術的發展과 國際的 普及. 추천: 동승학술재단 상임이사 이원직



熊谷明泰

상 장 : 第11-52號 위의 사람은 우리말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수상자 : 崔圭蓮 1950年生, 연세대학교 강사. 주요공적: 「국어의 초점사 현상」. 추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근

상 장 : 第11-53號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초점 현상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한 표현을 초점사로 범주화하고 그에 대한 통사적 현상과 의미적 분류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국어의 초점사 현상」을 저술한 學術的 功績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崔圭蓮

II. 동송학술논문상 시상

수상자 : 李俊昊 1973年生,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객원교수. 주요논문: 『한국어 수행 평가의 원리 및 방안 연구』. 추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정수

상 장 : 上 장: 第11-1048號 위의 사람은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진단하는 수행 평가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는 淸明한 學位論文을 발표함으로써 그 業績이 사학의 學術的 發展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論文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李俊昊

수상자 : 李叔直 1975년생, 충남대학교 강사. 주요논문: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연구』. 추천: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경봉

상 장 : 第11-1049號 위의 사람은 논항 정보를 활용한 동사의 의미 분석을 통해 한국어 동사의 의미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淸明한 學位論文을 발표함으로써 그 業績이 사학의 學術的 發展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論文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李叔直

수상자 : 吉惠金 1952년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주요논문: 『Ultrasound Evaluation of the sacral area and comparison of sacral interspinous and Hialal approach for caudal block in children』. 추천: 연세대 의과대학 학장 정남식.

상 장 : 第11-1050號 위의 사람은 醫學 研究에서 마취학을 主專攻으로 하여 특히 臨床麻酔에 관한 淸明한 論文을 발표함으로써 그 業績이 사학의 學術的 發展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論文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吉惠金

수상자 : 李銀浩 1973년생,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임상조교수. 주요논문: 『Impact of Intravenous lidocaine on myocardial injury after off-pump coronary artery surgery』. 추천: 울산대학교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최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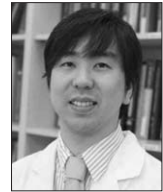
상 장 : 第11-1051號 위의 사람은 醫學 研究에서 麻酔學을 主專攻으로 하여 특히 임상마취에 관한 淸明한 論文을 발표함으로써 그 業績이 사학의 學術的 發展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論文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李銀浩

수상자 : 閔斗載 1974年生, 고려대학교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임상조교수. 주요논문: 『Morphine Postconditioning attenuates ICAM-1 expression on endothelial cells』. 추천: 고려대학교 총장 김병철.

상 장 : 第11-1052號 위의 사람은 醫學 研究에서 麻醉學을 主專攻으로 하여 특히 臨床麻醉에 관한 淸목할 論文을 발표함으로써 그 業績이 사학의 學術의 發展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東崇學術論文賞을 수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財團法人 東崇學術財團 理事長 文學博士 金敏洙



閔斗載

III. 동승연구지원금 수혜자

金志梧 先生

국 적 : 대한민국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 직 : 한국연구재단
보조연구원



金志梧

피뢰(皮磊) 先生

국 적 : 중국

박사과정 : 원광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 직 :



피뢰(皮磊)

김혜령 先生

국 적 : 대한민국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 직 :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원 연구원



김혜령

鄭娟朱 先生

국 적 : 대한민국

박사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

현 직 : 가톨릭대학 강사



鄭娟朱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재단에서는 동승학술상을 시상하기 어려운 민족학술 연구의 현저한 공로자에 대하여 시상 여부와 관계없이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로 추대함으로써 잊지 못할 그 공적을 기록하여 오래도록 기하려고 한다.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재단에서는 동승학술상을 시상하기 어려운 민족학술 연구의 현저한 공로자에 대하여 시상 여부와 관계없이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로 추대함으로써 잊지 못할 그 공적을 기록하여 오래도록 기하려고 한다.

2011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鄭烈模(1895년~1967)

白水 鄭烈模(1895-1967)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많은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가 월북 국어학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어학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의 새로운 면을 밝힌다기보다는 그 간 남북한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가를 정리하면서¹⁾ 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鄭烈模의 삶

鄭烈模는 1895년 11월 1일 충북 보은군 회북면에서 長鬚 鄭氏 海潤의 三男으로 태어났다. 1911년 회인보통학교를 마치고 상경하여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다니며, 주시경이 세운 조선어강습원에서 문법을 공부했다. 1912년 3월 조선어강습원 중등과(제5회), 1914년 3월에 고등과(제2회)를 수석으로 수료하였고, 1915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를 수료하였다. 이후 보통학교 교원에 임용되어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교편을 잡았다. 1921년 3월 일본 早稻田大學 고등사범부 국어한문과(일본어한문과)에 입학하여 1925년 3월에 졸업하였다. 그는 이 시기에 일본의 문법학을 학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스승 주시경의 문법론과 다른 독자적인 문법론을 수립할 수 있었다.

1925년 4월 귀국한 그는 본격적으로 조선어 연구에 뛰어들었다. 1925년 귀국하자마자 중등학교 조선어교원으로 부임하였고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1926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어학회의 한글강습회에서 이병기, 최현배, 신명균, 권덕규 등과 함께 강사로 활약했으며, 1927년 2월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을 창간하는 데에 관여하였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었을 때는 편찬위원이 되었고, 사전 편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맞춤법 제정위원, 표준어 사정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1931년 4월에는 김천고등보통학교의 교무주임(교감)으로 자리를 옮겨 1932년 교장이 되었고 10여 년 간 조선어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해 수감되었으며, 1944년 9

월 30일 공소소멸로 석방된 후 김천에서 칩거생활을 하였다.

해방 후 정열모는 중도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 민족자주연맹 등에서 정치활동을 하였으며, 1948년 4월 문화인 108인의 남북협상 지지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다.²⁾ 그러나 그의 주된 활동 범위는 교육·문화계였다. 조선어학회 소속으로 한글 보급운동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종교의 지도인사로서 대종교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46년 3월 국학전문학교의 초대교장, 1947년 6월 흥익대학관의 관장, 1949년 6월 흥익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족 교육 기관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월북³⁾하여, 1955년 10월 김일성대 언어학과 교수, 1958년 과학원 언어학 연구실 교수, 1964년 과학원 후보원사, 1965년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실 교수, 후보원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 국어학 연구 활동

1926년 이후 조선어학회는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한글강습회를 열었다. 이는 한글을 배우고 익히자는 문맹퇴치운동과 맞물려 민족문화운동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鄭烈模는 최현배, 이병기, 권덕규, 신명균 등과 함께 조선어강습에 나서는데, 그는 최현배와 함께 文

1) 유목상(1993)과 최기영(2003)에서는 鄭烈模의 이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鄭烈模의 삶과 관련한 내용은 유목상(1993)과 최기영(2003)에 기대어 기술했음을 밝힌다.

2) 문화인 108인 남북협상지지 서명에 참여한 어문학자로는李克魯, 李秉岐, 洪起文, 鄭寅承, 金炳濟, 柳烈, 柳應浩 등이 있다.

3) 그가 북한으로 가게 된 것이 자진 월북인지 남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중도적 민족주의 노선을 견지하며 함께 활동했던 이극로, 유열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월북 이후 북한에서의 활동 사항을 고려한다면 그의 북행은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法 부문을 주로 담당했다. 그는 이때부터 조선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글을 발표하고, 조선어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어철자법 통일 문제는 조선어학회의 주요 과제였는데, 조선어학회가 철자법 통일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은 1928년 총독부 학무국에서 열린 “제3차 교과서 철자법 제정을 위한 철자법 개량 조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조선어학회는 철자법의 근본적인 개정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건의서의 요지는 철자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문법 원리에 입각한 형태주의 철자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鄭烈模는 신명균, 이병기 등과 함께 이 건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철자법 개량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1930년 형태주의로의 철자법 개정을 이끌었다. 그는 이 시기 한글철자의 원리를 규명하고 한글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가 자신의 문법론을 체계화하여 발표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1927년 [한글]에 6회에 걸쳐 “朝鮮語文法論”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그의 문법체계가 온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松下大三郎의 [標準日本文法](1924)을 따라 조선어문법을 체계화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鄭烈模의 독자적인 문법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국어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그는 논문에서 “나의 獨創的 偏見이 안이라 内外 文法學을 參互하여 그 合致된 精神을 取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가 일제강점기 동안 발표했던 조선어학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 1926.05. “正音頒布八回甲을 當하야.” 「新民」13.
- 1926.11. “우리글 普及은 教育으로부터.” 「新民」19.
- 1926.11. “經濟上으로 본 우리글.” 「朝鮮日報」11월 13자.
- 1926.12. “文化上으로 본 우리말.” 「新民」20.

- 1927.02. “音聲學上으로 본 正音.” 「한글」1-1.
- 1927.03-04. “朝鮮語研究의 正體는 무엇?” 「한글」1-2/1-3.
- 1927.04-1928.10. “朝鮮語文法論” 「한글」1-3~2-2.(6회)
- 1927.05-11. “言語와 文字” 「한글」1-4~1-7.(4회)
- 1927.05. “安廓君에게 與함.” 「東光」.
- 1927.07. “우리 글을 옳게 적자는 주장을 가지고.” 「東亞日報」7월 6일자.
- 1927.10. “이날을 기림하야.” 「朝鮮日報」10월 24일자.
- 1927.12. “한글 정리 반대자를 위하여.” 「別乾坤」.
- 1928.01. “國語와 方言.” 「한글」2-1.
- 1929.08. “한글 綴字 原理에 對하야.” 「新民」52.
- 1929.09. “周先生과 그 周圍의 사람들.” 「新生」2-9.
- 1932.01. “方言矯正에 努力이 必要.” 「朝鮮日報」1월 2일자.
- 1933.03. “대명사에 대하여.” 「한글」7.
- 1935.06. “「아니」의 格位는 무엇?” 「한글」24.

국어학의 연구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는 청소년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들을 위한 동시, 동화를 비롯해 다양한 수필작품을 남겼다. 특히 청소년들의 쓰기 교육을 위해 한글 문예독본을 남긴 것은 특기할 만하다.

- 1929.04. 「現代朝鮮文藝讀本」권1 殊芳閣.

해방 이후 국어학 연구 활동

해방이 되자 鄭烈模는 문법서를 출간하는 등 문법 연구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인 한편, 1920년대부터 모색해 온 자신의 문법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1927년 발표한 조선어문법론에서 자신의 문법체계를 모두 보여주는 않았지만, 이후 문법론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문법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 1946년에 나온 [신편고등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46년 [신편고등문법]을 출간하여 자신의 문법론의 전모를 세상에 알렸다. 이 문법론은 주시경과 최현배의 문법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어 제3유형의 문법으로 불리는 것으로, 주시경문법에 松下文法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⁴⁾ 그는 자신의 문법론이 정립된 경위를 이 책의 머리말에 상세히 밝히고 있다.

“내가 이십년전에 서울 중등학교에 재직할 때 생도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책임을 가져 한편으로는 문예독본의 재료를 모으고, 한편으로는 문법 교재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일본 국학원대학 마쓰시다씨의 표준일본문법이란 책을 읽어 그때까지 내가 가진 문법상 의견과 부합된 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정성스러이 읽어 얻은 바가 많았으니, 이 책의 조직은 전적으로 그를 모방한 것이다.

나의 국어연구의 벽은 한힌샘스승으로 말미암아 쌓이 트고 히못 김두봉님으로 말미암아 뼈가 생기고 주산 신명균님으로 말미암아 살이 붙었다고 스스로 믿는 바 인데, 내가 이 책에서와 같은 새 안을 세운 것은 선배의 지은 길에 배반함이 아니라, 선배의 뜻을 받아 새길을 열고자 함이니...”

그는 형태소 단위(낱뜻)와 단어 단위(감말)을 구분하면서, 단어 단위(감말)를 기준으로 품사를 분류하여 5품사(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를 설정하였다.⁵⁾ 철저하게 단어의 문법적 기능에 중점을 둔 분류가 특징적이다. 특히 조사를 품사로 설정하지 않고, 명사의 격(빛)과 동사의 활용(빛)을 같은 차원으로 보았다. 이 부분이 주시경의 문법과도 다르고 최현배의 문법과도 다른 鄭烈模 문법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북한 규범문법의 확립 과정에서 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방 이후부터 월북하기 이전까지 그가 발표한 국

어학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946.03. “조선말 동사의 피동과 사역.” 『한글문화』1.
- 1946.04. “우리말.” 『한글』94.
- 1946.04. “한짜페이지에 대하여.” 『大潮』1-2.
- 1946.10. “신편고등국어문법” 서울: 한글문화사.
- 1947.1-3. “새로 읽은 향가.” 『한글』12-1.
- 1947.11. “여성과 한글.” 『새살림』1-7.
- 1948.09. 『초등국어문법독본』 서울: 고려서적.
- 1948.09. 『고급국어문법독본』 서울: 고려서적.

앞서 일제강점기에 조선 청소년들의 쓰기 교육을 위해 한글문예독본을 남긴 것은 소개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를 개정하여 한글문예독본을 두 권으로 발행한다. 그가 [신편고등국어문법]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그는 우리말 교육자로서 문예독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1946.02. 『한글문예독본 첫권』 신흥국어연구회.
- 1946.06. 『한글문예독본 담권』 신흥국어연구회.

월북 이후 국어학 연구 활동

鄭烈模는 1950년대 진행된 북한 국어학계의 문법 논의를 주도해 나갔던 국어학자 중 하나였다. 특히 북한 국어학계는 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였는데⁶⁾, 당시의 논의는 교착어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金敏洙(1980:296)에서는 鄭烈模의 문법을 제3유형의 문법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문법은 周時經系로서 그 바탕 위에 색다른 松下文法을 적용한 것이라 했다.

5) 물론 그의 문법에서는 명사(본명사/수사, 대명사), 동사(동작동사/존제사, 지정사, 형용동사), 부사(접속사) 등과 같이 품사의 소분류를 엄두에 두고 있다.

6) 1958년 “조선어형태론의 특성에 대한 학술토론회”와 1963년 “조선어문법구조연구에서 주제를 튼튼히 확립하기 위하여”라는 학술토론회에서의 주요 쟁점은 토의 성격 문제였다.

鄭烈模는 이 논의에서 토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접사로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었다. 북한의 토 논의는 토의 형태적 특성 즉 교착적 성격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鄭烈模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 출판된 북한의 규범문법서인 「조선어 문법」 1에서는 이전의 문법서와 달리 토를 독립 품사가 아닌 문법적 접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동안 국어학과 관련한 연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중반 이후 그는 국어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썼다. 토와 관련한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문장론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하였으며, 문체론⁷⁾에 대한 영역에까지 논의를 확대하였다. 이들은 [신편고등국어문법](1946)에서 보여준 자신의 문법론을 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체론과 관련한 논의는 그가 일제강점기부터 청소년의 쓰기 교육을 위해 문예독본을 저술한 것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1956.12. “조선어 문법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견해.” 「조선어문」6.
 1957. 「국어문법(인민학교 제2.3학년용)」교육도서출판사.
 1957.04. “체언술어에 나타나는 ‘이’의 성격.” 「조선어문」2.
 1958.01. “조선어의 ‘토’ 들 1.” 「조선어문」1.
 1958.03. “조선어의 ‘토’ 들 2.” 「조선어문」2.
 1959.01. “문장론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조선어문」1.
 1959.07. “조선어에 복합문이 있는가?” 「조선어문」4.
 1960.03. “조선어에 침투된 한자어에 대한 문제.” 「조선어문」2.
 1960.11. “조선어의 문장론에서 논의되는 ‘구’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과 복합문의 유형.” 「조선어문」6.

1960.09. “상황어의 구조 및 어순.” 「말과 글」
 1961.12. “탁월한 언어학자 주시경 선생.” 「말과 글」
 1963.05. “조선어의 문장론에 제기된 몇 가지 문제의 역사적 고찰.” 「조선어학」2.
 1963.08. “진술성.” 「조선어학」3.
 1963.11. “통합관계와 그 성분.” 「조선어학」4.
 1964.08. “말쓰기에서 표현성을 찾기 위하여 제기한 이런저런 문제.” 「조선어학」3.

또한 향가를 비롯하여 고대 국어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고 이에 대한 논문과 단행본을 발표하였다. 고대에 대한 관심은 1947년 향가에 대한 글을 발표할 당시부터 나타나는데, 월북 이후 국어학 연구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년에 향가와 고대국어에 대한 연구서를 2권을 출간한 것은 그의 학문적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준다. 古語 관련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1954.08. 「신라향가주해」국립출판사.
 1959.01. “고전 해독에서 주체성을 살리자.” 「조선어문」3.
 1962.08. “언어학적 측면에서 본 [향약집성방].” 「조선어학」3.
 1965.11. 「향가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조선어 고어 역사」고등교육도서출판사.

※ 참고로 한국어학회의 「한국어학」 17집에 ‘자료 발굴과 소개’에 나와 있는 ‘정렬모’ 부분을 첨부한다(끈제비치·심비르제바의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라지코프와 마주르의 개인 문헌 보관 자료 참조,” 「러시아 한국학」(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 국제 센터 연감, 제2권, 모스크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출판부, 2001년)).

정렬모(鄭烈模)[I / 5] 대학에서 조선어 학부 연구원, 여러 조선어문법의 작가. 1947-48년 서울에서

7) 1960년대 중반 북한 국어학계에서는 문체론 연구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를 선도한 인물이 김수경이었다.

그는 [신편 고등 조선어 문법]을 출간하였다. 우리가 있었을 때, 그는 조선 중학생 교과서에서 '통사론' 분야와 북조선 아카데미 출판의 조선어 문법에서 '통사론' 편을 연구하였다.

정렬모는 주시경 선생의 학생이었다. 18세부터 조선어를 연구하였다. 대학에서 그의 첫 연구 관심 분야는 통사론이었다. 향가 노래의 해석 [신라 향가 주해](1954)와 [향가 연구](1961)이 발표되었다. 그는 주시경 선생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조선 어문]과 [말과 글]에서 다른 주제로 발표하였다. 가사 장르의 노래와 관련된 것들을 출판하면서, [조선 고전 문학 선집] 시리즈 편찬에 참여하였다. 1961년 통일 민주주의 조국 전선의 중앙 위원회 회원이 되었다.

〈參考文獻〉

- 姜信沆. 1996. 「國語學史」(增補改訂版) 서울: 普成文化社.
- 고영근 외. 2004.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서울: 박이정.
- 金敏洙 編. 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1-4권 서울: 녹진.
- 金敏洙. 1980. 「新國語學史」(全訂版) 서울: 一潮閣.
- 김영환·권승모 편. 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

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유목상. “백수 정열모 선생.” 「얼음장 밑에서도 물은 흘러」 서울: 한글학회.
- 이상혁. 2007. “해방 후 초기 북쪽 국어학 연구의 경향-1945~1950년 초기 국어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어문논집」56.
- 정기호. 2001. 「정렬모 말본 연구」 부산: 육일문화사.
- 최경봉. 2005.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 최경봉 외. 2007.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국사편찬위원회 구술채록 자료)⁸⁾.
- 崔起榮. 2003. “白水 鄭烈模의 생애와 어문민족주의.” 「한국근현대사연구」25.
- 최호철. 2002. “자료 발굴과 소개: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한국어학」17.

〈2011년 11월 25일 원광대 최경봉〉

8) 이 자료집에는 金敏洙, 柳穆相, 李康魯, 李應百, 정재도 등 국어학계 원로 5인의 구술이 녹화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실에서 시청각 자료로 열람할 수 있다.

2011년도 시상식

2011년 11월 25일(금) 오후 2시-4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홍사단 3층 강당

- 개 회 사 : 사회(재단 사무국장)
- 국민 의례 : 사회
- 식 사(인사 말씀) : 재단 이사장
- 상장 및 연구비 수여 : 재단 이사장
- 축 사 : 정진권 교수
- 답 사 : 수상자
- 폐 식



축 사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 정진권

저는 작년에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 東崇學術財團에, 존경하는 若泉 선생께累가 된다, 사양해야 한다,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도 욕심에 못이겨 두 눈 질끈 감고 받았습니다. 이런 제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일일 것 같아 사양을 했는데, 이 축사는 작년 수상자가 하는 게 관례라고 해서 염치불고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큰 상을 받으신 劉銀鐘 선생과 구마타니 아키야스 선생은 우리말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히 우리말의 국제적 보급을 위해 진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洪思滿 선생은 우리말 특수조사 연구에서, 崔圭蓮 선생은 국어 초점사 연구에서 각각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저는 이 네 분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논문상을 받으신 다섯 분 중 李俊昊 선생은 國語教育 분야에서, 李叔宜 선생은 國語學 분야에서, 그리고 吉惠金, 李銀浩, 閔斗載, 이 세분 선생은 癡醉學 분야에서 각각 탁월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이분들에게도 경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들이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런 논문상 한번 타봤으면-. 그러면 자랑도스럽겠지요?

오늘 연구지원금을 받으신 분은 네 분입니다. 김지오, 피뢰, 김혜령, 정연주 선생, 저는 여러분도 부럽습니다. 여러분은 젊은데, 여러분의 가슴 속엔 학문에 대한 열정이 활활 불타 텐데, 여러분의 뒤엔 여러분의 공부를 돕는 훈훈한 손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젊은이들인데, 어떻게 부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행복을 구가하십시오.

東崇學術財團 이사장이신 若泉 金敏洙 선생께서는 해마다, 큰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세상에 드

러내십니다. 좋은 논문 쓴 증견들을 격려하고 유망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저는 이제, 오늘 큰 상을 받으신 네 분, 논문상 받으신 다섯 분, 연구지원금 받으신 네 분께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若泉 선생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소감 동승학술상 유 은 중

만물이 무르익어 주렁진 열매로 인류에게 안겨주는 풍성한 가을날에 오늘 저는 영예롭게 동승학술상을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지난달에 교직중사 45주기 성대한 축하모임을 가지고 종신영예교수라는 명예를 가졌는데 오늘 또 한국 학술분야에서 최고의 학술상으로 자랑하는 동승학술상을 받게 되어 하늘로 날아갈 듯 한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문화포장을 수여하면서 “한글을 빛나라”는 교시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6년 만에 동승학술재단 이사장이시며 한글을 빛낸 김민수 교수님께서 이런 큰 상을 내리시어 더욱 영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나는 한글을 전공하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찼는가를 생각해봅니다. 나의 한생은 한글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걸음마다 값진 인생이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길은 한글학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느 길보다 찬란한 길입니다. 저는 근 5년간 절강월수외국어대학 초빙기간에 한국어교수진을 묶어 펴낸 시리즈교재가 20여권, 동방학술논단 21기, 중사전 4부를 편찬해냈습니다. 때로는 한국어를 전공하고 떠나가는 길이 너무 험져웠고 치질 때가 많았습니다. 귀여운 손자손녀도 안아볼 기회마저 없이 분주히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전공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며 떠가는 일은 목숨보다 더 값지고 영광에 찬 일이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칠줄 모르는 힘이 솟구쳐 오르곤합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길에서 제가 한 일은 한 걸음 내디딘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동승학술재단에서 저에게 이런 영예를 안겨준 것은 한국어전공의 길에서 힘을 더 내라는 요구이며 편달이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많습니다. 성급과제 기초한국어 6권의 교과서 편찬을 마무리하고 전국통용교재이며 국가표준인 국제비즈니스한국어 1,2권 수정과 3권 편찬을 다그쳐 해야 하고 이 프로젝트의 딸린 항목으로서 중한-한중비즈니스대사전을 성과적으로 끝내며 마지막으로 중한교류와 관련한 대사전 하나만 더 편찬할 작정으로 자료수집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일생을 가름하고자 하는데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부지해주소서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제 아내의 자아희생적인 뒷받침이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근신하게 일한 덕이며 우리 교수진에 계시는 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마치도 시나물이 모여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여 바다를 이루듯이 뭉친 힘과 지혜로 이루어진 결과가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공로는 저를 아끼고 사랑하고 저와 손잡고 일하신 분들, 저를 관심하고 배려하신 분들의 것입니다. 이 공로는 모두 그분들에게 돌립니다.

당신들의 지지성원에 지난달에는 절강월수외국어대학의 종신영예교수 칭호를 받아 안았다면 오늘은 또 동승학술상을 받아 안아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의 이름 앞에 자호를《백산》이라 달고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며 살고자 합니다. 왜 《백산》이란 자호를 달았느냐에 대한 답은 이려합니다.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자긍감으로 살고 한국어로 인생을 빛내겠다는 다짐입니다. 《백산》이란 자호는 그 뜻으로 말하면 백발이 성성하도록 한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며 백발을 날리며 한국어를 전공하고 빛내겠다는 의미에서 흰(白)자를 따왔고《산(山)》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길에서 태산처럼 무겁게 살며 드팀없이 산처럼 의지가 굳세리라는 다짐에서 이 두 글자를 취하였습니

다. 장백의 푸르른 소나무마냥, 백두의 숭엄한 봉우리 마냥, 한글이 펼쳐가는 세계적 무대에서 푸르른 이상을 펼치고 숭엄한 자세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날을 기념하여《백산》장학금 또는 백산상을 귀 대학 한국문화 연구소에 설치하려 합니다. 이 상금의 영원한 확보를 위하여 한국의 관련 대학 또는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힘을 합하여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에게《백산》장학금 또는 백산상을 주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한국어를 전공한 보람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연변대학에서 국가 또는 성, 부급 교수 연구 성과상을 받아 안을 때거나 한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친히 한글발전 유공자라는 문화포장을 수여할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한글을 빛내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 울려옵니다. 오늘도 그 때를 떠올리면서 동승학술상을 받아 안으니 가슴이 사뭇 벅차오릅니다. 나의 일생은 한글과 같이하는 일생입니다. 한글이 없으면 나의 오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글과의 인연이 아니라면 이런 감격스런 나날들이 어찌 있었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한국어의 학과건설과 한국어연구, 중한관련사전을 펴내는 실제 행동으로 중한교류에 여생을 아낌없이 다 바칠 것입니다. 오직 이 길에서 매진하는 자세로 한국 동승학술재단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승학술상 홍 사 만

동승 학술 공로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저의 가슴 속에는 기쁨과 함께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심회가 교차했습니다. 앞서 수상하신 분들의 현저한 연구 업적과 높은 경륜의 품격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승학술재단과 심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로서는 이 과분한 상을 받음으로 새삼 제 평생 학문의 삶을 반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9세의 약년으로 모교인 경북대학교 강단에 섰던 것이

바로 엇그제만 같은데 어느새 정년퇴임이라는 인생의 단락을 넘어셨습니다.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데 무엇 하느라고 그렇게 분주했는지 참으로 숨 가쁜 질주였습니다.

굳이 이 상에 관련지어 자신을 돌아본다면, 70년대 일본에서 착수한 대조언어학 연구와 90년대 그곳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쓰쿠바(筑波)대학에서 10년이 넘는 각고 끝에 이루어낸 학위의 여정은 참으로 멀고도 긴 터널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2년간 시마네(島根) 현립대학에 파견되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가르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기마다 배증되는 한국어 수강자들을 한 몸매에 끼안고 열심히 가르치다보니 그 대학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와 운용, 그리고 한일어 음운 체계의 대조를 강론할 때 그들의 눈은 빛났고, 깨침으로 무릎을 치던 그들의 모습은 저를 자긍심으로 고무시켰습니다. 매주 이어진 시민 한글 강좌는 강사와 수강자가 하나가 되는 가슴 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시장으로부터 민간사절인 '무지개 대사'를 위촉 받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 2000년부터 우리 민법 전문 1,118조를 일본 민법과 비교하여 일본어의 잔재를 찾아내었고, 이로부터 어법적으로 쉽고 정확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표현으로 다듬은 법조문 순화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국어 특수조사론은 제가 평생을 두고 궁구해 온 연구 테마입니다. 특히 박사 학위 논문인 일본어 副詞(取立詞)와의 대조 연구를 통해 분포와 기능의 확고한 논거와 검증의 궤적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국어 형태론에서 출발한 저의 구학(求學)은 어느덧 의미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련의 어휘사 연구는 언어생태적 현상을 접목시켜 어휘의 통시적 맥락을 추구한 것인데, 그 일부가 줄져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 변천](2003)으로 출판되어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동학들이 아낌없이 보내준 옥고로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국어 형태‧의미의 탐색](2009)을 엮었는데, 이 책도 문화체육관광

광부의 우수 도서로 선정되어 저의 퇴임을 더욱 빛내 주었습니다.

80년대 초부터 국토통일원의 용역으로 남북한 언어를 비교 분석하여 언어 통일의 방안을 모색해 왔고, 2004년에는 [북한 문화어 어휘 연구]를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년대부터 오랜 기간 경북대 한국어 연수부장을 맡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권의 한국어 교재를 편찬하여 재일 당시 이 책으로 직접 강의했고 국내에서도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국어생활상담소를 맡아 국어 순화와 우리말 바로 쓰기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교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끝으로 김민수 이사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공적은 “민족 학술 연구의 선양”이라는 동승학술상의 숭고한 이념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 개의 작은 모퉁이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아가 오늘의 영광된 수상은 저로 하여금 여생을 서재의 안두에 머무르게 하는 큰 권면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동승학술상 구마타니 아키야스(熊谷明泰)

평소에 전자메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제 일상에, 오랜만에 국제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새하얀 봉투에 초록으로 정갈하게 인쇄된 ‘동승학술재단’이라는 발신자 표시에 의아한 마음으로 개봉을 해 보니 동승학술상을 수여하겠다는 생각치도 않았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상을 하신 선생님들의 소감을 읽어보았습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대단히 훌륭한 성과와 업적을 이루셨음에도 겸허하게 수상소감을 집필하신 것에, 부질없이 나이만 더해가는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한국과의

만남은 고등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오사카에서는 재일한국조선인 고등학생과 일본인 고등학생이 힘을 모아 1년에 한 번 문화제전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배에 이끌려 그 회의에 출석한 이후, 저는 문화제전 준비로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조선고급학교와 건국고등학교 학생들과 친밀하게 교류를 하며, 한국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은 그 때에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일한국조선인 친구들이 제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언어학에 흥미를 갖게 되어 박사과정에 재학 하던 시절, 일본 문부성의 해외 파견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고려대학에 재학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당시, 한국에서는 남북 간의 언어문제까지 정치의 도구가 되었던 삼엄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시대에 동서 냉전의 정치적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치밀하게 북한 언어 연구를 하시던 김민수 선생님께서 그 곳에 계시다는 것이 제가 고려대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귀국 후, 제가 근무하는 간사이대학의 인권문제연구실에서 한국의 식민지 언어 체험에 관한 청취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정부기록보존소(현재의 국가기록원)를 방문하게 되어 뜻하지 않게 ‘국어상용’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징병제도 실시에 관한 각의 결정에 따라, 1942년 봄부터 조선총독부 및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전국적으로 ‘국어상용・국어전해’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을 정리한 총독부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황국신민의 연성(練成)’을 위해서는 ‘국어’ 습득이 불가결하다는 내용으로 노골적인 조선어 사용금지 정책이 수치를 잊은 채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사건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당시의 실태는 일본사회에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저는 이들 자료를 모아 『조선총독부의 국어정책 자료』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

습니다.

한민족의 자존심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 식민지 언어정책의 실태를 일본사회가 인식해 가는 것은, 한민족과의 상호이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제게 꿈만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를 격려의 기회로 삼아 일본인인 제가 해야 할 일을 전력을 다해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생활에서 많은 분들의 선의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첫 해의 추석 밤, 하숙집 학생들이 모두 귀성해 혼자 외로움을 달래야 했던 그 때, 미망인이시던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어린 파님과 송편을 빚어 제게 한국문화를 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눈이 내린 아침,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 양쪽 겨드랑이 팔을 잡아주던 학생들의 따뜻한 체온, 갑자기 내게 팔짱을 끼며 당황해하는 내게 “군사부일체라고 하잖아요!!”라며 웃어주던 여학생의 해맑은 미소 등 셀 수 없이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늘 열심히 공부하라며 격려와 질타를 거듭해 주셨습니다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여 민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구정에 선생님 고향의 맛이 담긴 떡국을 맛보게 해 주신 것과, 그 자리에서 손수 다식을 만들어 주셨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에서 한국어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제게 앞으로도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선생님과 동승학술재단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동승학술상 최 규 련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도 국어학의 큰 학자이시면서 학문과 후학들을 위하시는 뜻이 일찍부터 크고도 깊어서서 동승학술재단이 세상에 고고성을 터트리게 하고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거듭 모든 사재를 다 기부하시며 후학들의 귀한 본보기가 되시는 김민수 동승학술재단 이사장님과 동승학술재단에 머리 숙

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옥한 가운데 학문에 대한 열정은 작지 않아 지금까지의 학문적 여정 중에 크게 두 번의 학문적 오디세이를 경험했고 이제 세 번째 오디세이를 구상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않고 작년에는 모시고 있던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큰 슬픔까지 겪어 의기소침한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기에 더욱 이번 동승학술상은 제게 커다란 영광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26세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으며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서른살 이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내지 못하면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지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젊은 노벨상 수상 과학자들이 여럿 있어서 이러한 견해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으나 21세기인 이제는 기초지식 습득에만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른살 이전의 젊은 과학자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과학발전에 대한 기여를 하고 노벨상을 받기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고 미 오하이오주립대 브루스 와인버그 교수와 노스웨스턴대 벤저민 존스 교수 등 경제학자는 7일(현지시간) 미 국립 과학원회보(PNAS)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높은 벽을 사이에 두고 소통이 없던 과학과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도 이제는 통섭이란 화두로 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통섭에도 '사물에 널리 통함' 또는 '서로 내왕함' (通涉)과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 (統攝)의 두 가지 뜻이 있어서 국내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유행시킨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의 통섭은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 (統攝)으로 생물학을 모든 학문의 주인으로 삼으려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이 아니라 국어학이 통섭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학이 소통과 다스림을 다 아울러서 과학과 인문학이 소통할 진정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고 가능한 공약수를 찾는 통섭(統攝)과 다양한 분야의 학자가 함께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내왕하는 통섭(通涉) 모두를

우선적으로 국어학에서부터 출발시키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모두를 아우르는 대장정을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장정에는 중견 이상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젊은 학자들을 끌어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식 습득만으로도 벅찬 젊은 학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승학술재단과 동승학술상이 국어학이 주도하는 통섭 대장정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김민수 동승학술재단 이사장님께, 동승학술재단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늘 시기적절하고 금과옥조 같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영근 선생님께, 제 모든 선생님들, 동학들, 교우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뻐하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논문상 이 준 호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날은 한 기관에서 초청한 해외 한국어교사들을 위하여 특강이 잡혀 있어 이른 아침부터 부산히 준비를 마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초행길이라 가야 할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게 되었고 길 안내를 해 주던 내비게이션은 막다른 골목으로 저를 데리고 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30분이나 여유를 두고 출발했지만 결국 그 주위를 몇 바퀴나 돌고 나서야 5분쯤 늦게 특강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을답지 않게 더운 날씨 때문이었지, 아니면 길을 헤매느라 체온이 올랐었는지 강의실로 들어서자마자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강의실에 준비된 컴퓨터가 말썽을 부려 준비해간 파워포인트 파일마저 열리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자료 한 장 보지 못한 채 긴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너무 목이 타서 건물 내의 편의점에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해 유리문에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을 때는 이미 기분이 나빠질 만큼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차에 올라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고 동승학술논문의 수상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이 기뻐 그대로 차 안에 앉아 있게 되었고, 한참이 지나자 많은 얼굴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미진하다, 부족하다 탓하시는 대신, 서둘러 마라, 더 생각해라 하시며 늘 헛살 같은 용기로 감싸 안아 주셨던 최호철 교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길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큰 수상의 영광이 누릴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 김정숙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지도해 주신 그 많은 스승님들의 얼굴이 끝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공부하는 남편에게 투정 한 마디 없었던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까지도. 하지만 수상의 기쁨도 잠시, 부끄러운 마음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이런 논문에 상을 주신 것은 그 부족함을 앞으로 빈틈없이 채워 나가야 한다는 또 다른 가르침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던 그날에 동승학술 논문상 수상 소식이 반가운 반전이 되었듯, 부족하고 미진한 저에게, 오늘의 수상은 더 깊이 있고 학계에 공헌할 수 있는 학자로 거듭나라는 반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수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크고 영예로운 상을 주신 동승학술재단에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상 이 숙 의

저 보다 훨씬 이전부터 국어학 연구에 정진하시고 계신 여러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에 비하면 연구자로서의 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간 스스로 이 길을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학술 논문상을 받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일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 재단으로부터 수상자 통보에 관한 메일을 받았을 때, 제게 잘못 온 메일이 아닌가 하고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지도 못했고 학계에 기여할 만한 뛰어난 연구 업적이 있는 제가 아니기에 이 상을 받아도 될까하는 걱정이 들고,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는 않으면서도 펄 듯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마음 역시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국의 어휘 의미망 개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말의 개념체계수립과 특정영역 동사의 어휘 의미망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기술적인 면에서 전산화 전공자 역할의 비중이 크고, 주로 영어권 중심의 연구 결과를 한국어에 적용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었고, 연구의 실효성과 성과에 급급하여 연구 수행의 지속에 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마침 이러한 고민의 시기에 주어진 이번 논문상은 그간의 제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금 큰 힘을 얻어 마음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상은 저에게 과분한 일이지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저의 연구 방향과 목표대로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연유와 논문으로 이 상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동승학술재단 관련 여러 선생님들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꾸짖음보다는 칭찬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지도교수님이신 충남대학교 김진수 교수님과 부끄러운 제자인 저를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껴주시는 김차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매진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부끄럽지 않은 연구자의 모습으로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상 김혜금

먼저 2011년도 마취과학 분야의 동승학술 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학술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동승 학술 논문상은 그 취지가 '학술연구의 질적 향상과 뛰어난 신진학자의 배성' 이고 지난해에도 본 교실에서 수상자가 있어 젊은 연구자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취과학에 종사한지도 수련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 넘었고 이제는 퇴직할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것이 어느 면으로는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마취과학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후학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논문상 이은호

올 초에 최인철 선생님께서 저를 동승학술 논문상 후보로 추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연구자로서 아직 많은 면에서 부족한 저로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승학술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러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번 논문상이 제가 잘해서 받는 상이라기 보단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동승학술 논문상의 취지처럼 더욱 더 연구에 매진하여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동승학술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이사님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스승으로서 또한 선배로서 연구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항상 몸소 보여주시며 제

가 이 자리에 있게 지도해 주신 최인철 선생님과 항상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국 선후배님들과 같이 이 수상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논문상 민 두 재

우선 전통 있는 동승학술 논문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과 절 추천해 주신 이미경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의사로서 또한 연구자로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동승학술 논문상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승학술상을 통해 저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주기도 하며, 또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동승학술상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취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며, 또한 큰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번 학술상을 통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도 좀 더 분발 하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상이 주는 의미가 이렇게 큰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승학술상이 발전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혜택을받기를 소망하겠습니다.

東崇學術財團 沿革(前號 계속)

- 10. 5. 18. 학술지원공고(344개소)
- 10. 14. 심사위원회, 수상후보 선정, 이사장에게 추천, 2010년 동승학술상 수상자 확정
- 11. 22. 제14회 동승학술상 시상식. 서울 종로구 흥사단 3층 강당.
- 11. 2. 17. 제1회 임원회 개최, '10결산보고, '11사업계획(안) 및 '11예산(안) 심의 확정
- 4. 7. 임원(감사) 연임을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승인, 등기완료 등
- 5. 23. 학술지원공고(341개소)
- 9. 30. 심사위원회, 수상후보 선정, 이사장에게 추천, 2011년 동승학술상 수상자 확정
- 11. 25. 제15회 동승학술상 시상식. 서울 종로구 흥사단 3층 강당
- 12. 1. 4. 재단 신규임원 신년하례식
- 1. 22. 임원(이사) 연임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승인. 등기완료 등
- 2. 27. 제1회 임원회 개최, '11결산보고, '12사업계획(안) 및 '12예산(안) 심의 확정
- 4. 30. 재단 소식지 16호 별책 발행